

기자의 현장성·시인의 감수성으로 그린 남미

40일간의 남미 배낭여행

윤현주 지음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 순서는 각자 다를 테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미션처럼 떠올리는 장소들이 다. 제대로 여행하려면 ‘돈·시간·체력’이 요구되는 곳이라 직장에 얽매인 이들은 ‘퇴직 이후’를 생각한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장소를 요구한다.” 알랭도 보통의 말에 자극을 받은 그는 ‘선례가 없다’는 말에 굴하지 않고 사장에 게 직접 메일을 보내 진정성을 호소한 후 40일간 남미로 떠날 수 있었다.

‘기자가 걷고 시인이 쓴 40일간의 남미 배낭 여행’은 35년간 부산일보에서 취재기자로 일해온 기자이자, 시집 ‘맨발의 기억’을 펴낸 시인 윤현주가 써내려간 기행문이다. 수많은 현장을 발로 뚫은 기자의 장점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글과 세심한 시인의 감성이 어우러진 책은 흥미롭게 읽힌다. 책에는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최윤식 건축가의 스케치 작품도 함께 실렸다.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5개국을 아우르는 여행에서는 남미의 광활한 자연, 거대한 문명과 흔적, 영욕의 역사와 현지인들의 삶의 모습을 만난다. 그의 곁에는 칠레 작가 이사벨 아옌데의 소설 ‘영혼의 집’, 빅토르 하라와 메르세데스 소사의 음악, 비극적인 현대사를 다룬 영화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 등 남미의 다양한 문화예술이 등장해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남미 여행의 관문 도시 페루 수도 리마에서 시작된 여행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나스카 라



아르헨티나 로스 글라시아 국립공원 페리토 모레 빙하 유빙. <다큐북스 제공>

인’과 ‘지구의 배꼽’ 쿠스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호수인 티티카카 등으로 이어진다. 또 세계 최대의 소금 사막인 볼리비아의 우유니에서 만난 아름다운 일몰의 풍경, 가만히 들여다보면 눈이 멀어버릴 것처럼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는 아르헨티나 모레노 빙하의 경이로움, 잔혹하고 거친 원시성을 만나는 칠레의 파타고니아, 지금도 떠올릴 때면 고단한 삶의 강가에서 무지개가 뜨는 풍경이 그려지는 이구아수 폭포 등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에서는 “죽은 왕국은 여전히 살아 숨쉰다”고 노래한 네루다를 기억하며, 남미의 투쟁과 저항정신의 상징이 된 오래된 도시를 마음에 담는다. 시인인 그를 남미로 이끈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집을 찾는 대목이 눈길을 끈다. 그는 산티아고의 집 ‘라 차스코나’를 찾아 네루다와 우편배달부의 우정을 그린 영화 ‘일 포스티노’의 장면들을 떠올리고 발파라이소,

이슬라네그라 등 또 다른 네루다 집으로도 발길을 옮긴다. 작가는 프롤로그에서 체 게바라의 말을 인용했다. 낡은 오토바이로 8000km에 이르는 남미 여행을 마치고 “난 이전의 내가 아니다”라고 천명한 후 혁명가로 변신한 체 게바라를 떠올린 그는 여행 후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인지 기대하며 설레는데, 책을 읽다보면 그 설레임을 ‘직접’ 느껴보고 싶은 생각도 든다. 한편 책 출간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당초 출간 작업을 맡아 초고 수정까지 진행중이던 부산 출판사가 폐업하게 되면서 작업이 중단됐고, 저자 역시 정년퇴직을 하게되면서 책 출간은 없던 일이 될 참이었다. 이 때 페이스북을 통해 사정을 알게 된 광주외 다큐북스 대표로부터 제안이 왔고, 책은 ‘영호남 합작품’으로 세상에 나왔다. <다큐북스·2만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그림자 왕(마자 멩기스테 지음, 민은영 옮김)=“역사는 그들을 잊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이탈리아-에티오피아 전쟁을 배경으로,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조명한 작품이다. 작가는 전쟁에 나간 증조모의 실화를 바탕으로 수년에 걸친 자료 조사를 통해 소설을 완성했다. 격동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섬세하게 담아냈다. <문학동네·1만9000원>

▲행복의 언어(차머스 브러더스 지음, 박상문 옮김)=언어는 감정, 자세,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그 연결고리에 주목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심리적 단서를 탐색한다. 강연처럼 흘러가는 글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언을 적용하고 행동의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세이코리아·2만5000원>

▲야생의 실종(이노세 고헤이 지음, 박동섭 옮김)=지적 장애를 지닌 형의 실종을 계기로, 저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다시 바라보게 된다. 일본의 문화인류학자인 저자는 형을 찾는 여정을 통해 장애를 사회적·인류학적으로 탐구하면서도,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던 삶의 경계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존재와 타자, 세계



와 나 사이의 관계를 사유하며 써 내려간 가장 개인적 기록. <세이코리아·1만8800원>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가(김진석 외7인 지음)=어리거나 늙거나 아프거나 다지거나... 누구라도 돌봄의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돌봄을 개인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다. 그런 현실을 직시하며, 일상 속에서 모두가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 중심 커뮤니티 케어’라는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헤이북스·1만9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좋은 선택은 힘이 세!(지니 김·한진아 지음, 이말리 그로 그림)=“좋은 선택을 한다는 건, 그 선택에 책임지는 법도 함께 배우는 거예요.” 하버드 교육 전문가 지니 김 박사와 어린이책 전문 작가가 함께, 아이들에게 현명한 선택이란 무엇인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재치 넘치는 그림과 유쾌한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은 ‘내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며 배워볼 수 있다. <길벗스쿨·1만7000원>

▲파이트(이라야 지음)=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캄보디아에서 자란 열일곱 살 하람은 격투기 선수를 꿈꾸며 혼자 한국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낯선 환경 속에서 외로움은 깊어지고, 적응은 쉽지 않다. 그러던 중 체육관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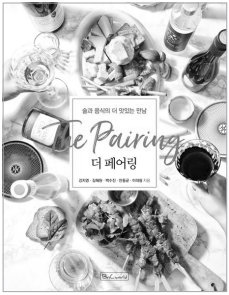
나고, 관장과 동네 경찰처럼 따뜻한 어른들을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어간다. 가족간의 오래된 상처를 성급한 화해가 아닌 조심스럽게 도약이며 풀어낸다. <창비·1만5000원>

▲쥐들 G들(강담마 지음, 김수빈 그림)=방정환 문학 공모전 대상 수상작. 전염병을 옮긴다며 햇살바람쥐를 없애려는 인간들. 로봇 쥐 ‘지치’와 햇살바람쥐들의 우정과 모험. 과연 마지막 햇살바람쥐들은 희망의 노란달기숲에 도착할 수 있을까? ‘사골 쥐의 서울 구경’을 모티브로 인간 중심적 사고의 위험과 생명의 소중함, 종을 넘어선 우정, 진짜와 가짜의 경계 등 다양한 주제를 자연스러운 서사로 풀어냈다. <밝은미래·1만3000원>

술과 음식의 더 맛있는 만남

더 페어링

강지영 외 지음



점차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더운 여름 입맛을 돋우는 음식 가운데 물회가 있다. 오독오독 씹히는 해산물, 쫄깃쫄깃한 회, 싱싱한 채소에 살짝 얼린 새콤달콤한 소스를 즐길 수 있는 음식이다. 물회는 바닷가 인근 지역에서 손쉽게 먹을 수 있었지만 사실은 어부들과 해녀들의 숨은 노력이 담긴 음식이다. 물회와 잘 어울리는 술은 화주, 막걸리, 사케 등이다. 화주는 인삼의 다양한 향과 맛이 물회의 강한 맛에 밀리지 않고 전체적인 맛을 이끌어가는 술이다. 막걸리는 물회의 달콤함과 어우러지며 매콤함을 부드럽게 잡아준다. 사케는 술의 단맛이 매운맛을 정리해주고 고소

한 맛을 더 느끼게 해준다. 음식에 잘 어울리는 술을 모토로 식문화 분야 전문가 5명이 책을 펴냈다. ‘술과 음식의 더 맛있는 만남, 더 페어링’은 다양한 음식 72가지를 선정해 각각의 음식에 부합하는 술을 3종류씩 정리한 책이다. ‘페어링’은 연결, 두 개의 그룹 등 공합이 잘 맞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책에서는 ‘음식과 술을 찾아내 조화를 맞추고 최상의 맛을 얻어내는 것’을 일컫는다. 집필에는 세계음식문화 평론가이자 비교연구가인 강지영을 비롯해 푸드 디렉터 김혜원, 메리어드 호텔 셰프 백수진, 음식블로거이자 건축사 안동균, 농업연구사 겸 전통주 전문가 이대형이 참여했다. 책을 펴내게 된 계기는 지난 2022년 주식공합(酒食 吻合)이라는 연구회 리더인 강지영 제안으로 시작됐다. 모임은 음식을 정하고 어울리는 술을 시음하고 기록을 하다 점차 확장되고 깊어졌다. 얼마간의 시행착오 끝에 이들은 “술에 대한 관능평가 후 음식과 각각의 술을 하나씩 마셔 보는 과정을” 거치며 나름의 방향성을

잡았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술과 음식의 기막힌 조합을 발견했을 때는 보람이 있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고역이기도 했다. 책에는 물냉면과 스파클링와인, 들기름 막국수와 사케, 약과에 어울리는 증류주(전통주), 시저 샐러드와 공합이 맞았던 맥주 등 다양한 주식공합의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책은 연구회가 했던 방식을 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장은 술의 종류, 제조 방식 등을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소개했다. 또한 페어링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2장과 3장은 음식을 기준으로 시음한 10여 종의 술 중 가장 부합하는 3종을 선정, 그 이유를 기술했다. 저자들은 “솔직하게 의견을 모았고 배워 나갔으며 서로 격려했다”며 “독자 여러분도 맛있는 음식과 술을 탐험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비엔씨월드·2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